

교수공채 쟁점 부각

학교당국 학과 교수회의에서 학생의견 반영
교강사 채용의 공개, 참여 요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8월31일 조영식총장에 보내 교강사 공채 등 6개항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학교당국의 답변서가 지난 5일 전달됐다.

이에 따라 교수채용의 조건, 교수 인원 배정에 대한 근거자료, 법정교원수 확보를 위한 학교당국의 계획, 학생들의 교수-강사충원에 참여하는 문제, 총장선출에 대한 학교당국의 입장이 발표됐다.

이 답변서는 교수공채채용의 기준이 학과당 4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문교부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생이 교수-강사충원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과 교수회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장선거인권을 앞두고 총장선출에 대해서는 "여러사람의 뜻을 한데 모아 총장을 선출함으로써 경희제도의 계기로 삼자"고 밝혔으며, 총장선출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교수-강사 채용과정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학교당국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교수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총장직선에 대해 경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조>

한편 서울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우리학교 교육과 교과과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따른 교수협

의회(이하 교협)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의 구두답변을 지난5일 전달받았다.

이번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교수협의회를 개회한 이후 정복근(문리대·물리)교수협의회의 학사위원장을 통해 구두로 전해졌으며, 답변에 대한 교심위의 입장도 대자보를 통해 발표됐다.

교수협의회의 답변에 따르면, 교심위의 설문조사 및 그 결과의

총학생회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됐으며, 교육문제와 교과개편에 관한 질문에는 학교 교과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과위)를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는 것과 교수협의회의 임의단체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있다고 밝혀졌다. 또 교수채용시 학생의 참여여부는 학생이 교강사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교육자가 교수채용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교심위는 교과위의 대표성 위임에 대해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협의 전면위임을 받아들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촉구했다.

한편 교과위는 오는 15일 각과별 전공교과개편이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교과구조를 심의, 확정하게 된다.

원회' (이하 교과위)를 대표기구로 인정한다는 것과 교수협의회의 임의단체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있다고 밝혀졌다. 또 교수채용시 학생의 참여여부는 학생이 교강사 추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피교육자가 교수채용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교심위는 교과위의 대표성 위임에 대해 교수들의 대표기구인 교협의 전면위임을 받아들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촉구했다.

한편 교과위는 오는 15일 각과별 전공교과개편이 완료되는대로 구체적인 교과구조를 심의, 확정하게 된다.



○지난 4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9월투쟁 선포식'을 마친후 교문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양캠퍼스 9월투쟁 선포

구국선봉대 건설 및 내각제개헌 반대투쟁 결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발족식 및 9월투쟁 선포식'이 지난 4일 오후2시 노천극장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김주환(문리대 물리·4)총학생회 사회부장은 학추위 발족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인사적방, 주한 미군 철수, 청년학도 대규모 방북투쟁,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학추위 발족식"을 결의하고, "구국선봉대" 건설·강화에 대한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미·노태우일

당 음모분쇄와 민자당 해체를 위한 자주정의 9월 투쟁선포"에서 송규봉(국문·4)총학생회장은 '민자당 단독국회 파산과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을 위해 90년 반미·반민자당투쟁의 광장에서 총집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일 공과대학관 앞 통일광장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장기집권을 위한 미·노일당의 음모에 파열구를 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입수경 대표석방과 한반도 반핵군축을 위한 청년학도 결의대회'가 지난 6일 건국대에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충현 학추위 부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투쟁보고, 통일인사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폭로, 고위급회담·군비증강에 대한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진(사립대 총학생회장)서충현 학추위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실제적인 군비축소 실시와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국가보안법과 단일의석 공동가입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휴지통마저 무색한 난지도 교정



휴지통마저 무색히 서있는 우리의 난지도 교정

굴러다니는 쓰레기 더미만큼이나 어설픈 경비가각을 외친 우리의 구호가 요란한 수레바퀴는 아니었는지

<조인성 記者>

총학생회 2학기 진군식

오는 12일 노천극장·통일광장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2일 2학기 '진군식'을 가진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진군주간'으로 정하고, 학생들 인터뷰, 낙서대자보, 심심성(경정대 무역·4)부총학생회장에게 엽서보내기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진군식에서는 총선발 발표, 진군시 낭독문의 행사와 고사 및 '노래열'의 축하공연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도 오는 12일 공과대 통일광장에서 진군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반기 투쟁출정식, 9월투쟁 정책기조 발표, 총학생회 체계 소개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총학생회는 상반기 체제

학생·학교 불편한 수업시간 변경

▼몇년전 여름, 우리에게 생활시간을 1시간씩 늦추는 썬더타임이 있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작되었던 썬더타임, 이후 올림픽 개최와 함께 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어쨌든 갑작스런 생활패턴의 변화로 국민들은 편한 불편과 피로감만 경험해야 했다.

▼개강과 더불어 수강신청 경쟁, 등록금 납부등으로 캠퍼스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강의시간의 임의적인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학사일정에까지 그 파동이 미치고 있다. 즉, 한 과목의 강의시간이 바뀌면서 타과의 과목 시간과 중복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로인해 수강신청 경쟁에 제정당까지도 불가

피한 실정이다. 결국, 학사일정은 계속 늦춰지게 되면서, 학생 입장에선 시간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의시간 변경은 특히 문리대, 정경대가 심해, 개강후 문리대는 약 10개, 정경대는 약 13개 과목의 시간표가 바뀌었다. 이렇듯 강의시간 변경이 속출하는데는 여러가지 사안이 맞물려 있다. 우선, 계속 제기되었던 강의실 부족 문제와 함께 교수들의 개인적 요구에 의한 시간이동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타대생들의 교양과목 강의가 많은 정경대의 경우, 평균 40%에 머무는 예비수강신청률로 미쳐 수강인원을 파악치 못해 시간이 변경되는 한 원인이 되고있다. 그러

나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들 근처에 뿌리박고 있는 인식, 곧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의 만연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썬더타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 겪은 채 사라져야 했다. 집중이 잘되는 오전시간대로 강의편성 요구, 혹은 대학원 수업으로 인한 금요일 강의의 줄어드는 것은 교수의 개인적 입장이 전체 학생의 시간표 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무리한 행정처리이다. 전체 대학생원의 약속인 강의시간표, 일단 확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하겠다.

대학주보 기획광고 -밥고 활기있는 대학 만들기 운동①

“손에 책을 든 이상한 학생”



요즈음에는 대학캠퍼스에서 책을 들고다니기가 왜인지 쑥쓰러워집니다.

책은 든 학생보다 술병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이상해 보이는 대학, 우리모두 그런 대학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